

아시시의 사면 - 포르치운쿨라 전대사 - 기념일: 8월 2일

- + 16세기에 지어진 천사들의 마리아 대성당은 포르치운쿨라로 알려진 아주 작은 경당을 감싸 안고 있다.
- + 그 경당은 성 프란치스코가 복구한 성당중의 하나였다.
- + 이곳은 성 프란치스코가 복음을 듣던 중, 하느님께서 자신을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를 깨달았던 장소이다.
- + 여기에서 1209년에 수도회를 창설했다.
- + 성녀 글라라는 1211년 이곳에서 프란치스코에게서 직접 수도복을 받았다.
- + 1216년 성인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했을 때, 환시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시시의 사면 즉 전대사를 받게 되었는데 - 나중에 호노리우스 3세 교황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다.
- + 이 곳에서 작은 형제들의 초기 총회들이 열렸다 - 1221년 돗자리 총회에 5000명의 작은 형제들이 참석했다.
- + 여기에서, 1226년 10월 3일, 성 프란치스코는 경당 바깥의 땅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죽음의 자매를 맞이했다.

“나의 아들들이여,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.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, 저쪽 문으로 다시 들어 오시오. 이 터는 참으로 거룩하며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형제들의 수가 얼마 안 될 때,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늘려 주셨습니다. 바로 여기에서 당신 지혜의 빛으로 가난한 형제들의 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. 이 곳에서 당신 사랑의 불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. 여기에서 정성되이 기도하는 자는 바라던 것을 얻을 것이며, 이 장소를 더럽히는 자는 더욱 엄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아들들이여, 하느님께서 사시는 이 곳은 모든 영예를 받을 만한 곳임을 명심하고, 온전한 마음과 환희와 찬미의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이 곳에서 드리도록 합시다.” (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, 첼라노 제 1생애 7장)

사면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

- + **매년 8월 1일 저녁부터 8월 2일** (천사들의 마리아 축일) 에 프란치스코 성당이나 자기가 속한 성당을 방문해야 한다. (처음에는 전대사가 포르치운쿨라에서만 주어졌는데, 세월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.)
- + 포르치운쿨라를 방문하면 일년 중 어느 날이든지 대사를 받을 수 있다.

아시시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

전대사 -- (본인이나 돌아가신 영혼을 위하여)

- 하느님의 성스러운 은총안에 있기 위해서 **고백성사**를 한다 (전대사 간청 시작 전 후 8일 내에);
- **거룩한 미사**에 참여하여 **성체**를 모신다;
- 가톨릭 교회를 방문해서 **신앙 고백**을 한다 (니케아 신경이나 사도 신경);

-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례 성사에서 받았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재확인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**주기도문**을 암송한다;
- **교향님의 지향을 위해 기도한다**: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고 보편 교회의 목자이시며 신자들간의 일치의 가시적인 표징이다.

이 주제에 대한 우수한 참고 자료: <http://www.shrinesf.org/pardon-of-assisi.html>

또한, 스페인어를 읽을 수 있으면 포르치운쿨라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.

토론이나 묵상을 위하여

- + 마태 복음 10장 9-15절을 읽으시오. 이 부분은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치운쿨라에서 듣고 읽었던 복음입니다. 모든 프란치스칸들과 재속 프란치스칸들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오.
- + 8월 1-2일에, 프란치스칸 성당이나 다른 성당을 방문해서 대사를 받는 조건들을 실행해 보시오.
- + 방문한 곳에 머무르는 동안, 성체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. 당신의 성소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.